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플래스틱산업 정상화의 시초

플래스틱산업이 중병을 앓고 있는 모양이다. 플래스틱 가공기업 중 부도를 맞은 곳이 부지기수이려니와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보를 필두로 삼미, 진로, 대농에 이어 기아그룹까지 쓰러지는 판국이니 플래스틱 가공산업이라고 별 뽀쪽한 수가 있을리 만무하겠지만, 플래스틱 가공산업의 부실은 재벌들의 부도와는 또다른 측면이 있기에 상당한 충격이 되고 있다.
국내 플래스틱 가공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94년기준 플래스틱 가공부문의 출하액은 8조23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총출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기업수는 5300여개로 5.6%, 종업원수는 10만명이 넘어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5년기준 국민1인당 플래스틱 소비량도 86.07kg으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86.7kg, 이태리의 86.1kg, 스위스의 86.0kg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플래스틱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플래스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기능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으면 성장성은 무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재벌들이 플래스틱 가공에 군침을 흘리는 것을 보면 가공산업의 장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래스틱 가공산업이 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체로서 성장성이 없는 불모의 상태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고사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발적 요인과 타의적 압박이 순차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스스로의 해결능력을 상실한 채 현상에 만족하는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유지·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요인을 든다면, 국내 플래스틱 가공산업은 몇몇 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태, 생산기술, 영업구조 등 모든 면에서 제조기업이라고 평할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원가의 절대부문을 차지하는 원료 구매까지도 주먹구구식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의 발전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악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문이 뒤떨어져 있다.
80년대 중후반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정책으로 합성수지의 국제가와 국내가격에 큰 차이가 벌어졌을 때 국내 플래스틱 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가 있었으나 신규설비 투자 및 R&D, 기술인력 양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츠에 골프채를 흔들면서 호화별장 출입에 여념이 없었고, 정부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타적 습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타의적 요인을 든다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래스틱 가공산업을 말살하면서 그 과실을 챙기려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94년 3월3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합성수지 카르텔로, 석유화학 재벌들은 스스로 저지른 과잉투자로 인한 가격폭락을 만회하기 위해 「석유화학카르텔」을 결성, 공급가격은 물론 수급선까지 담합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킴은 물론 가공기업들의 발목을 붙잡아매는 가공할만한 횡포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석유화학카르텔은 일시적으로 경영을 양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플래스틱 가공산업의 부실을 부채질함으로써 국내의 원료 수요처를 상실,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급과잉 100%에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로 소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 불장난이라는 것이다.
95년기준 플래스틱 가공제품 수출이 30억2200만달러로 총수출의 2.4%를 점유하고, 수입도 11억200만달러로 총수입의 0.8%를 차지함으로써 10년전인 8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래스틱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화학저널은 석유화학과 플래스틱 가공산업의 중간에 서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학저널 1997/8/4.11>